

### 종합·해설

#### 민주 '소리없는 당권경쟁' 시동...지역 국회의원 행보는

# 박지원 '도전'...박주선·김효석 '고민'

## 이낙연·유선호 의원은 차기 지도부 노려

차기 당권을 향한 민주당 주자들의 물밑 탐색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제외하고는 지역 국회의원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차기 총선 등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도전을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다.

특히, 차기 당 대표 등 지도부는 내년 총선 공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형성할 수 있어 치열한 경쟁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광주·전남 국회의원 가운데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당권 도전 결심을 굳힌 상황이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담양에서 열린 전남 시군의회 의장 회의에서 특강을 통해 "제가 하던 연속국

원공을 마치고 다음 연속국을 준비하고 있다"며 당권 도전을 강력히 시사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원내대표가 6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당권 행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박 전 원내대표 핵심 측근은 "원내에서는 20~30명의 현역 의원들이 박 의원을 지지하고 있으며 원외에서는 염동연, 박양수 전 의원, 이강철 전 청와대 수석 등이 돕고 있다"며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해서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탄생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박 전 원내대표의 풍부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의 박주선 의원은 당권과 대권 도전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두 차례 연속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는 점에서 주변에서는 호남 대표성을

토대로 대권 도전에 나서라는 주문도 있지만 박 의원은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박 최고위원은 다음달 7일 '동북아 공동평화번영 전략, 한중일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데 이어 9월에는 지지 조직인 '동북아 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준비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내외에서는 박 의원이 당권과 대권 구도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의 김효석 의원도 대권 및 당권 도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당내 세력은 약하지만 '뉴 민주당 플랜'을 만들어낸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권 및 당권 도전에 나선다면 상당한 반향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전남의 이낙연, 유선호 의원 등도 차기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도전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권 도전 및 지도부 진입에 노리는 인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원내에서는 김부겸, 이강래, 이종걸, 문학진 의원 등이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원외에서는 김근태, 한병숙, 김한길, 이인영, 정균환, 신기남, 김태량 전 의원 등이 당 대표 및 지도부 진입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당권 구도의 가장 큰 변수로는 정동영, 정세균, 이인영 최고위원의 대권 도전 여부가 꼽히고 있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당권 도전으로 선화한다면 전체적인 당권 구도에 지각변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나라당의 전당대회 결과와 야권 통합 및 연대의 형태, 전당대회를 통한 당권 구도의 변수로 꼽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홍익대 부근 한 카페에서 대학생들과 '반값등록금' 정책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수도권 공천이 곧 당선?"

### 재보선 이후 지지율 상승...입지자 물려 경쟁 기열 분위기

민주당이 4·27 재보선에 승리하면서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자 내년 19대 총선의 수도권 입지자들이 줄을 서면서 당내 경쟁이 벌써 가열되는 분위기다.

지난 2007년 대선 패배 직후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야당의 무덤'이라고 불린 수도권에서 후보난을 겪을 정도였으나 이번에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란 말도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48석 중 40석도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당 일각에서 나

오면서 비례대표 의원을 포함, 예비주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민주당 당직자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서울에서는 강서영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 오훈 지역위원장, 김성호 전 의원, 이규의 수석 부대변인, 김을규 임대주택국민연합 공동대표 등 6명이 본선 티켓을 위해 뛰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위원장이 구속된 동태문갑은 손학규 대표의 측근인 서양호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정세균 최고위원과 가까운 지용호 전 청년위원장 등이 경쟁하고 있다.

지역구를 노리는 비례대표 의원과 지역위원장 간의 대결도 뜨겁다. 종량읍은 김덕규 전 국회 부의장 대(對) 안병욱 의원, 마포읍은 정청래 전 의원 대 김유정 의원, 노원병은 이동섭 전 서울시의원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비례대표인 김진애·박선숙·전현희 의원 등도 지역구 출마를 위해 수도권에 대상으로 선거구를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19일 "당내 경쟁의 경우 자연스럽게 교통정리가 되거나 경쟁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면 되지만 다른 야당과 얽히면 상황이 복잡해질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지원 "총선 과반돼야 대선 승리"

### 전남 시·군의회 의장 특강... "민주당 기득권 포기해야"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17일 "내년 총선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로 150석 이상을 거둬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민주당은 과감하게 기득권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담양리조트에서 열린 전남 시·군의회 의장회의 초청 특강에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양보해 감동적인 공천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야권 연합연대는 승리를 위한 연합연대가 돼야 산술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호남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과민반을 할 필요는 없다"며 '호남 물갈이론' 불식에 애를 썼다.

그는 또 "부자가 몸조심을 하지,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국회의

원 선거에서 져서 망한 민주당이 몸조심을 하고 있다"라며 "당 사람끼리 싸워서 잘될 것이 뭐가 있겠나. 던지려면 이명박 대통령에게 던지고 한나라당과 붙어야 한다"고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로 이까지 않았다.

특히 박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집권해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문제, 국가재정을 살릴 수 있도록 벅찬 임무라고도 놓고 수위라도 하겠다는 심정"이라며 연말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직에 도전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발전에 대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 "누가 대통령이 됐어도 그만큼의 경제발전은 됐고,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었다"라며 "사실 박 대통령이 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장면 내각에서 준비한 것을 바뀌어서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한나라 전대 레이스...출마선언 잇따라

### 홍준표·나경원·유승민 이어 원희룡 의원도 '도전장'

### 친이 '후보단일화'·친박+쇄신파 '전략적 연대' 주목

한나라당 7·4 전당대회에서 대표 지지를 선언한 인사들이 줄을 이으면서 당권 경쟁이 본격화했다.

전대를 보름 앞둔 19일 4선의 홍준표 의원과 탈계파를 자처한 재선의 나경원 의원, 친박(친박근계)계 단일 후보 재선의 유승민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데 이어 20일에는 3선의 친이(친이명박)계 원희룡 의원과 중립성향의 3선 권영세 의원이 출마표를 던진다.

이에 따라 이미 '쇄신파 대표주자'로 출마를 선언한 4선의 남경필 의원과 서울 종로의 3선 박 진 의원까지 더해 모두 7명이 내년 4월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한나라당 대표를 놓고 일당 경쟁하게 됐다.

원희룡 의원은 20일 오전 전대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19대 총선 불출마라는 배수진을 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대는 재보선 패배 등으로 고전해온 한나라당의 총선 위기감 속

에 치러지는데다 유승민 의원을 제외 한 6명이 수도권 주자들이고 연령상 40~50대가 주축이어서 '새로운 리더십'을 갈망하는 당심이 표출될지 주목된다.

특히 수도권 주자들의 '군웅할거' 형국이 되면서 당권주자들 사이에 함중연혈·짜릿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 패배로 비주류로 전락한 친이계 내부에서는 원희룡·나경원 의원의 후보단일화를 성사시켜 당권 장악에 나설지가 관심으로 떠올랐으며, 신주류로 부상한 '소장파+친박' 연대가 다시 손을 잡는 전략적 투표를 할지 주목된다.

이 같은 기류 속에 일부 당권후보 들은 벌써부터 친박계 단독후보로 출마라는 배수진을 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대는 재보선 패배 등으로 고전해온 한나라당의 총선 위기감 속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노, 진보신당과 통합합의문 의결

민노당당은 1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정책 전당대회를 열어 오는 9월까지 광범위한 진보세력이 참여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한다는 내용의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최종합의문'을 참석 대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당대회에는 재직 대의원 841명 가운데 594명이 참석했다. 이날 의결된 합의문은 이정희 민노당총대 대표, 조중수 진보신당 대표, 김영춘 민주노총 위원장 등 12개 당·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을 초 협상을 시작해 지난 1일 채택했으며 이날 맡까지 각 정당·단체별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방식을 의결한 뒤 9월까지 신실·합당의 방식으로 당을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노당은 또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한다'는 표현 등을 삭제하고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한다'와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지향한다'는 내용을 담은 강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진보신당이 오는 26일 전당대회에서 통합합의문을 통과시키면, 야당은 정당 해산과 합당, 새 지도부 구성, 총선 공천 문제 등에 대한 실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靑-민주 영수회담

### 29일 개최 조율중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의 영수회담을 29일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은 19일 오전 민주당 김동철 대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와 29일 영수회담 개최를 목표로 의견을 조율하자는 뜻을 밝혔다. 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다.

이와 관련,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점 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와 영수회담을 연계시키는 의견이 많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대인동심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점 포가 할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이었던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 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전화 011-602-2532 (광주광역시 남구, 대전광역시 서구)

### 나라공인중개사

#### 펜션텔 매도

전북순창군 북흥면 대방리 펜션텔 2007년준공

- 대 지 : 10980㎡, 일야 : 13937㎡
- 케모미일 23평형 3개동, 케모미일10평형17개동 관리동1,각각 독채형식 주차장원비, 수리완성치,수원원,기도원적합 여유대지않음,계곡있음
- 매매가 : 13억(근저당2억9천만원) • 실투자금 : 11억1천

#### 모텔매도

전라남도 여수시 율산면 월산리 • 대지 : 1038㎡, 건물1095㎡

- 지하1층지상4층 객실 : 29개 엘리베이터 있음 율산산단입구 2012 여수세계박람회 숙박업 지정업소
- 매매가 : 10억(근저당3억6천만원) • 실투자금 : 6억4천

####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한국아파트입주후분부군 코너

- 대 지 : 262㎡ 제2종일반주거지역 원룸,빌라,점포형주택 적합
- 매매가 : 1억5천만

####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북광주IC 부근 생산녹지

- 대 지 : 1425㎡ 투자적합 도로있음 영산강변 경치좋음
- 매매가 : 2억2천5백만

####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일동초교부근

- 대 지 : 210㎡ 제2종일반주거지역 코너 원룸,빌라 적합
- 매매가 : 1억3천만

#### 과수원매매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신진리

- 전.답 : 9150㎡ 계획관리지역 배나무 15~20년생 2000주이상 지대가 높아 과실당도 아주 좋음
- 매매가 : 1억3천5백만

#### 토지매매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 공정용지및집종지 : 8480㎡ 공장부지 : 3192㎡의 집종지 담양육과방면2차선 도로점 4차선도로 계획있음
- 매매가 : 6억4천만

대표전화 ☎511-6633 핸드폰 : 010-6522-7731 FAX : 512-4589

### 신진공인중개사 (임대전문)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매매

- ▶ 산월IC 교통광장 접 코너
- ▶ 면적: 700평, 1350평 분할가 광고하고 최고!!
-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 화순 북면 수원원양양원기도원 부지 매매

- ▶ 일야: 47000평, 단층건물: 250평 (5동)
- ▶ 단지내 도로개설된 소나무, 산악초 재배단지
-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 ▶ 대 지 : 1500평(6차선 도로점)(700평)
- ▶ 자연녹지 : 700평 ▶ 일반공업지역 : 800평
-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 북구 동림동 공장(창고)급매

- ▶ 대 지 : 538평, 680평, 1000평
- ▶ 건 물 : 300평, 200평, 200평
- ▶ 높 이 : 8.9, 10.9m
- ▶ 호이스트 : 유, 유, 유
- ▶ 매매가격 : 협의후결정

문의: ☎ 016-644-4265, FAX.523-8558

## 남성 성기능 강화제

본제품은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갈근 등 20여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역할을 하여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돕고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뮤쿠나프리언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확인하세요.

● 평소에 발기는 되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루가 있는 분들은 성관계 전 약 2-3시간전에 1정을 섭취하면 1-5일까지도 지속할 수 있습니다.

● 발기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은 1일 3정을 3-7일 정도를 연속으로 섭취 하시면 발기가 잘됩니다.

문의 전화 010-7770-8138 주문즉시택배 무료배송

농협 302-0136-6325-61 권욱연

##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여) (아르바이트·시간제가능·연령무관)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광주·전남·전북 센터장 모집)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담양 : 김정수)